

■ 인물 탐방 - 부산광역시 한일친선협회·부용회 최 병 대 고문

배일(排日)이 아니라 극일(克日) 할 때

“일본과 정리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도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일본을 미워하고 배척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극일(克日)’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 거주 일본인 할머니들의 모임인 부용회와 한일친선협회 고문을 맡고 있는 최병대(85·대연5동)씨.

그가 재한 일본인 여성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부산에 설치된 일본총영사관에 근무하게 되면서부터.

총영사 근무 일본과 인연

1929년 창원에서 태어난 그는 상남보통학교 2학년 때 외삼촌이 살고 있던 히로시마로 건너가 서조소학교에 편입학한다. 중2말에 해방이 돼 가족들과 함께 귀국, 마산중학교(5년제·현재 마산고)를 다니다 졸업 후 진해에서 교편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부산에서 통역관을 하던 친척으로부터 “눈을 크게 뜨라”는 충고를 받고 다시 일본으로 가게 된다. 마산고 후배의 어머니가 있던 도쿄에서 거류민단 일을 봐주기도 하며 명치대 야간부에 입학한다.

카투사 출신에 미군부대 근무경험으로 영어와 일본어가 능통해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입이 좋아져 3학년 때 주간으로 옮겼고 5년 만에 졸업했다. 그러나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쉽지 않았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많은 사건이 있었다. 4·19혁명으로 장면 정권이 들어서고 곧이어 5·16혁명이 일어나면서 군인시대가 도래했다. 당시 보안사령관였던 김재준과의 만남이 인연이 돼 그는 마침내 민간인의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보안사에 근무하게 된다.

1965년 한일국교가 정상화되면서 1966년 2월 부산에 일본총영사관이

설치되었다.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겠다는 이유로 그는 외교관 대우로 특제된다. 그 당시 부산에서 최고층이었던 광복동 입구 대한생명건물 5층에서 선박관계·안전문제에 관한 업무를 보게 된다.

“한국 내 일본여성 실태를 파악하라”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관할구역인 경상도·전라도 일대를 발이 부르토록 돌아다녔다고.

부용회 여성 보살피

일제 강점기 때 한국남성들과 결혼해 자식까지 낳았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일본 여성들이 많았다. 한국전쟁과 60, 70년대 공업화 시절을 겪으며 냉대와 질서 속에서 힘들게 살아온 이들은 ‘부용회’라는 모임을 통해 타국생활의 설움을 달래 왔다. 부용회는 한국에 남아있고자 하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1996년 퇴임하기까지 30년간 일본으로 끌려온 사람은 500여 명. 그동안의 인도주의적 행동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일본정부로부터 사회공헌상과 훈장을 받았다. 또 부용회 등을 통해 우호적 한일관계를 위해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시로부터 ‘문화축제 행사 유공자’ 표창을 받기도 했다.

현재 부산 대구에 남아있는 부용회 회원은 3~4명 정도. 고령이다 보니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최병대 고문은 한 달에 한번 모임이 있을 때마다 참석해 우의를 다지고 있다. 최 고문의 바람은 한결같다.

“가끔씩 정치적 망안으로 공분을 사는 일본인이 있는 반면 한국 강점 등을 반대하며 활보까지 감행한 양심적인 일본인들도 많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말고 순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며 한일 간 우호관계를 돈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정미 기자

경향하우징페어 참가

국제GLASS공예 김강수 대표



김강수(53·대연3동) 국제GLASS공예 대표가 지난달 28일부터 4일간 벅스코에서 열린 경향하우징페어에 참가했다. 국제공예는 지난 96년부터 18년째 행사에 참여해 오고 있는 집합 유리 제작과 시공 전문 업체로 동종 업계 선두주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회사 창립과 함께 경향하우징페어에 참여해 기술력을 선보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왔고 이것은 곧바로 매출로 이어져 회사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산·영남 최대의 건축 전시회 경향하우징페어에 20년 가까이 참가하면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소비패턴을 파악하고 분석, 최적의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제품 개발에 앞장서는 한편 생활 속을 파고드는 유리공예에 제품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국노래자랑 등 전국 규모 가요제에서 여러 번 최우수상을 받으며 아마추어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영민 기자

전국시도의회 운영협 회장 선출

김 선 길 시의원

김선길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겸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회장은 최근 전라남도 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의에서 제6기 후반기 회장으로 뽑혔다.

김 회장은 재선 의원으로 현재 부산광역시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개발위원과 후반기 교육위원으로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선길 회장은 “부산광역시의회 제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이라는 임



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협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구청 볼링팀 은메달 2개

제94회 전국체육대회 2인조·5인조전서



전국체전에서 은메달 2개를 획득한 남구청 볼링팀 선수들이 이종철 구청장을 예방하고 기쁨을 나누고 있다.

명문 볼링팀으로 명성이 높은 남구청 실업볼링팀이 최근 열린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남구의 자랑이 되고 있다.

남구청 볼링팀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인천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은메달 2개를 따냈다.

볼링팀은 지난 20일 열린 2인조전에 강현진·유성희 선수조가 출전해 전국의 38팀과 경합을 벌인 결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대회 넷째 날에 열린 5인조 단체전에서 박선영·김지혜·유성희·김경희·강현진·이미령 선수가 발군의 실력을 발휘, 인천과 경전을 벌인 끝에 1점차이로 아쉽게 패

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볼링팀은 지난해 대구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는 동메달 1개에 그쳤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은메달 2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볼링팀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합숙 훈련을 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공을 들였다. 한편 남구체육회 이사과 구청관계자 등은 볼링팀이 경기하고 있는 인천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일조했다.

볼링팀 감독은 “남구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선수들의 피나는 훈련으로 전국체전에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만 갑 습 니 마 -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 설 원 수 신임 지사장

전기시설 무료점검 받으세요

지난 9월 1일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에 설원수 지사장이 취임했다. 설 지사장은 10여 년 이상 근무한 연고지에서 복귀 지원 업무 수행을 하는 지사장으로 취임한 것이 기쁘지만 무엇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설 지사장이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은 특정시설 즉 태풍이나 폭설 등의 자연재난이나 장비철거와 동절기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전기사고와 우려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실시이다. 그는 무엇보다 관내(남구 등 4개 구, 1개 군)의 전기기재해 발생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는 고심으로 가득 차 있다.

재해 예방책으로는 모든 시설에 대한 전기검사와 안전점검이 최우선이라고 한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에너지로써 사람이 편리하지만 위험성 또한 크다”며 전기설비를 항상 안전하게 유지토록 당부하고 “노후나 고장

으로 전기설비 보수 시에는 반드시 전기공사법 면허업체에 의뢰하여 적절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 지사장은 일정요건이 되는 주거용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가 불편해소나 안전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24시간 긴급 출동할 것을 약속했다. 전기사용 중 고장이나 정전 등 돌발사고 발생시에도 곧바로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그러한 긴급출동고충처리(Speed Call)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 뿐만 아니라 홍보 및 계몽 업무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도시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의 저소득 가구와 장애인, 1급~3급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의 주거용 주택설비와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은 무료서비스 대상이다.

그는 또한, 일상생활에서 전기안전관리 방법으로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월 1회 이상 시험용 버튼(적색 또는 녹색)을 눌러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것과, 주택 등의 전기시설에 대해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무료점검을 빠짐없이 받을 것을 권고했다.

설 지사장은 지역봉사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감만1동과 문현1동 500여 세대에 1,400여만 원을 들여 누전차단기, 콘센트, 멀티탭 등을 개·보수했으며, 이러한 활동은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1588-7500(한국전기안전공사) 김정화 기자



주철민의 남구 스케치

유엔의 날을 앞두고 UN기념공원을 찾은 다도회 회원들이 한나식을 통해 머나먼 미국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산화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대연1동·사진작가

■ 사람과 사람들

자랑스런 의성군민상

신왕길(대연3동) 대강볼트·너트 대표가 지난 10일 열린 의성군민의 날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식에서 푸조



지역을 위해 봉사한 공로로 애환상을 받았다.

‘운현궁의 봄’ 공연

김옥련 발레단은 지난 5월과 6월 이틀간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 김동진 문학 창작 발레공연 ‘운현궁



의 봄’을 무대에 올려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부산시장상 수상

최강림 경성대교수(기후변화정책학과)는 지난 4월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을활



동가의 날 기념식에서 부산광역시장 표창장을 받았다.

최 교수는 그동안 마을만들기에 기여한 공로로 이날 ‘우수마을 계획가’에 선정, 부산시장 표창장을 받았다. 최 교수는 “행복한 마을 가꾸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상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지역을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제수 페백 이바지 신행반찬 전문

최고급 식재료로 맛과 정성을다해 귀객의 품격을 높여 드리며
친정엄마의 마음으로 최상의 혼례음식을 책임지겠습니다.

101호 건강죽 각종피를 장아찌 즉석무침 국
H. 051-623-1017
P. 010-7122-2588

102호 제수 페백 이바지 신행반찬 행사음식
남천1동 해변시장상가 556번 4호문

고객님이 주신 사랑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전기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우리집 가족 건강도 지키고
대한민국 에너지 효율성도 지키세요!

KEPCO 국번없이 123
한국전력 남부산지사 (핸드폰 051-123)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내부도 형제처럼...”
수영한서병원 장례식장

대표 배도성
비례대표의원장 남구철의회 회장

수영한서병원 장례식장

BHS 수영한서병원 장례식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491-10 TEL. (051)751-1860~1

BHS 동래한서병원 장례식장 TEL. (051)582-1041

가장병원 장례식장 TEL. (051)724-1024 오동산업 TEL. (051)627-4880

부산 스카프·골프클럽 스카프, 골프클럽, 스크린골프 TEL. (051)625-8626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빈소사용료 30%할인
장의용품비 30%할인

대한치과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 제130215-5366호

진료안내
양악수술 / 임플란트
심미보철 / 치아교정
치아미백 / 악교정술
심미치료 / 소아치료
보존치료

진료시간
평 일 : 09:30~19:00
토 요 일 : 09:30~13:00
일요일, 공휴일 휴진
점심시간 : 12:30~14:00

성소치과의원
부산시 남구 대연6동 1763-6 대표전화 : (051) 627-0275
부산성소병원 6층 www.seongsodh.co.kr

남구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청에 신고된 전문 과 외!!
www.smartdailus.com

NAVER 교육인 검색
24시간 연중무휴 상담가능!!

교육청에 신고된 전문과외선생님들의 모임
본 광고는 유료광고이며 발행하는 모든 책임은 (주)맑은소리에게 있습니다.
(주)맑은소리 (사업자번호 617-81-94004)

교육문의 **051)755-3980**